

6·25 전쟁 납북인사 가족 협의회

Korean War Abductees' Family Union

“북한은 6·25 전쟁 중 10만 여 명의 남한민간인을 납북했다.”

진실규명
생사확인
송환
명예회복

www.kwafu.org

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로 153(10808)

전화 031 930 6025

팩스 031 930 6099

이메일 insightr625@kwafu.org

**“당면하여 부족한 인테리 문제를 해결하자면 남
조선에 있는 인테리들을 데려와야 합니다.”**

출처: 남조선에서 인테리들을 데려올데 대하여 1946. 7. 31 「김일성 전집 4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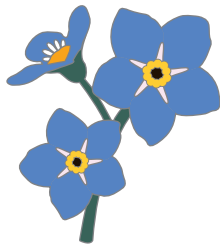
**“감옥에 수감 억류 또는 감시를 받던 1만 명 이
상 적어도 2만 명의 정치범들이 9월 17일에서
28일 사이에 서울에서 사라졌다 …… 서대문과
마포 두 형무소의 경우 대부분의 수감자들의 손
을 묶었고 또 다시 몇 명을 같이 묶었다 …… 이
사람들 대다수의 운명은 불확실하나 북으로 걸
어 올라가도록 강요당한 것으로 믿어진다.”**

출처: 미국 국무부 문서 1950. 10. 13 NARA

6·25전쟁 중 북한의 남한민간인 납치는 사전계획 하에 필요한
인사들을 지목하여 조직적으로 납치한 전쟁범죄다.

이 같은 사실은 북한 문서와 미국 문서, 남북 후 탈출자 증언, 남북
목격 가족 증언, 납북자 통계자료 등에서 입증되었다.

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납북범죄를 인정한 적이 없으며,
납북자에 대한 어떠한 소식도 전해 준 적이 없다. 반인도 범죄다.



가족회 연혁 및 활동



1954년 3월 11일 덕수궁 근처 남북자 구출대회

(사)6·25전쟁남북인사가족협의회(가족회)는 1951년 창립된 6·25사변피남치인사가족회의 정신을 이어받아 2000년 11월 남북자의 남은 가족들이 모여 재결성 되었다.

■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 소홀을 호소

[가족회 차원의 6·25 전쟁 남북자 문제 해결 촉구]

- 남북자 생사확인 촉구 서명운동
- 남북길 따라 걷기
- 남북자 이름 부르기
- 남북자 명부 및 관련 서류 발굴, 수집
- 남북자 가족들의 증언채록 및 증언집 발간(전5권)
- 증언 동영상 제작, 유튜브에 올림. 영어, 일본어, 중국어 자막 포함
- 「한국전쟁남북사건사료집」 1, 2권 출간
- 남북자 가족의 유전자정보 수집
- ‘북한에 의한 6·25전쟁 민간인 남북범죄 해결촉구 결의안’ 국회 통과 촉구 궐기대회 개최 (2019. 6. 24)
- 사이버기념관 www.돌아오지못한사람들.kr 을 제작, 개관(2021)
- ‘전시남북피해가족, 실효성 있는 보상 및 지원을 위한 논의’ 세미나 개최(2023. 11. 10)

외 다수

■ 국가 차원의 6·25 전쟁납북자 문제 해결 촉구 활동

- ‘6·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’ 제정, 공포 (2010. 3.)
- ‘6·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위원회’ 출범 (2010. 12.).
위원장 국무총리
- 납북피해자 재신고·접수, 납북자 결정통지서 발부
- 「6·25 전쟁납북피해진상보고서」 출간 (2017) 전2권
- ‘납북자대책위원회’ 출범 (2012. 11.): 납북자 문제 해결방안 논의를 위한 범부처협의체
- <국립 6·25전쟁납북자기념관> 건립, 개관 (2017. 11. 29)
- 윤석열 대통령 납북자에 대한 한미일 프놈펜 선언 (2022. 11. 13)
- 윤석열 대통령 미국 캠프데이비드 납북자에 대한 한미일 선언 (2023. 8. 18)
- 납북자 대책반 신설 (통일부장관 직속, 2023. 9. 8)

■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6·25 전쟁납북자 문제 해결 활동

(국제 활동: 북한에 의한 남한민간인 납북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)

- 민간인 납치 문제 국제 대회 개최 (2010. 3. 미국 하원)
- “한반도 문제의 선결 요건은 전쟁 납북자 인권회복 시키는 것” 연설
(미 National Press Club, 2007. 7. 26)
- 전쟁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의회, 결의안 채택 (2011. 12.) 하원의원 찰스 령겔 발의 (H.RES 376.) 만장일치 통과
- 유엔 인권이사회 병행 이벤트로 ‘전쟁범죄로서의 남한민간인 납북문제: 누구의 책임인가’ 세미나 개최 (2013. 3. 제네바)
- 국제 공조를 통한 민간인 납치피해문제의 해결 세미나 개최 (2013. 10. 서울) 일본, 폴란드 전문가 참가
- 북한의 전쟁 중 남한민간인 납치범죄 고발 (헤이그, 국제형사재판소 (ICC) 2013. 11.)
- 유엔강제실종실무그룹 (WGEID) 에 2012년 부터 4회차에 걸쳐 150건의 납북자 명단 접수 시킴. 2014년 북측으로부터 받은 118건에 대한 북측의 입장 표명을 메일로 전달해줌.
- Donald Trump 대통령에게 한반도 종전선언 입장에 관한 청원문 발송 (2018. 4. 26)
- 미 의회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관련 가족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 (2019. 7. 16)
- 오토 뎀비어 부모 초청 ‘북한의 납치 및 억류 피해자들의 법적 대응을 위한 국제결의대회’ 개최 (2019. 11. 22)
- 「아름지 않는 상처: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의한 강제실종 및 납치」 서울 유엔인권 사무소 보고서 발간 (2023. 3.)

북한의 6·25 전쟁 중 100,000 여명의 남한민간인 납북

누가 납북했나요?

김일성의 지시로 북한 정권이

왜 납북되었나요?

남한에 있는 각계각층 인사를 납치하여 북한의 국가
건설에 부족한 인재들을 충원하고 이들을 자발적 입
북으로 위장하고 북한체제 선전에 이용하기 위하여.

언제 어디서 납북했나요?

전체 납북자의 88.2%가 전쟁 발발 직후인 7월 -
9월에, 80.3%가 집이나 집 근처에서 납북됨. 북한
이 점령한 남한 전 지역 중 서울·경기지역에서 집
중적으로 납치됨(42.3%).

어떻게 납북되었나요?

대부분 지방좌익의 협조로 무장한 북한군인 정치
보위위원 내무서원들이 피랍자를 내무서 및 형무
소 기타 구금시설로 강제로 끌고가 구금했다가 손
을 묶어 야간에 도보로 강제 북송함.

송환

객관적인 분명한 납북 증거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
구하고 북한은 납치를 인정한 적이 없으며, 단 한
명의 납북자도 송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납북자
의 생사에 대하여 그 어떠한 소식도 준 적이 없음.

**여러분의 도움이 대한민국의 역사를
정리해 나가는 큰 힘이 됩니다!**

예금주 육이오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(소득공제 가능)

KEB하나은행 214-890009-50004

농협 031-01-437510

국민은행 010901-04-075237





My son, please take me with you

